발간등록번호 31-9735006-000619-14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제925호 | 2014년 11월 5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임성호 | www.nars.go.kr

2014 브라질 대선 결과분석과 향후 과제

김 영 일* · 김유정**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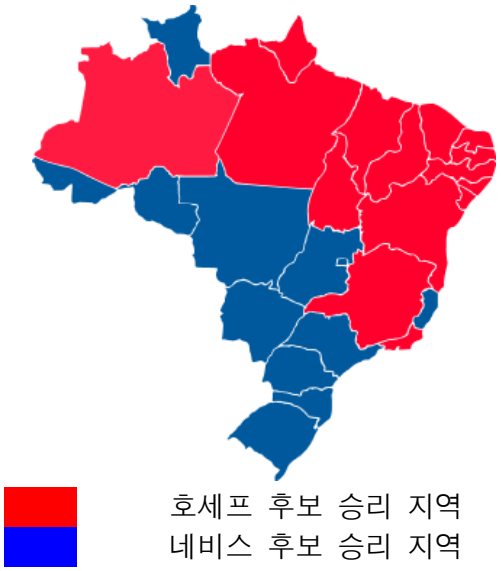
2014 브라질 대선은 현직 대통령으로 재선에 출마한 노동자당(PT) 출신의 지우마 호세프 후보가 51.64%의 득표율을 얻어 48.36%를 얻은 사회민주당(PSDB)의 네비스 후보를 힘겹게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이번 브라질 대선과정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1989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래로 가장 근소한 차이를 보여, 후보간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였다. 더욱이 1차투표에서 3위로 탈락한 사회당의 시우바 후보가 보수정당 후보인 네비스를 지지하고 나서 선거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막판에 룰라 전 대통령이 호세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침으로서 진보와 보수 진영간의 대립은 한층 더 격화되었다.

그 결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브라질 국민들이 계층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분열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재선에 성공한 호세프 대통령과 패배한 네비스 후보가 한 목소리로 호세프 집권 2기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화합(união)임을 강조하는 것도 이번 대선이 초래한 국민분열상의 심각성을 일깨워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2014 대선 지역별 후보 지지 현황



호세프 후보는 당선자로서의 첫 일성으로 혼탁한 선거과정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국민화합에 앞장서고, 이를 위해 국민과의 소통에 앞장서겠다(promover diálogo)고 천명하였다.[1)]

*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장, 정치학 박사, 788-4530, yikim@nars.go.kr
**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보, 국제지역학 석사, 788-4537, 825kiki@nars.go.kr

NARS

이하에서는 2014 브라질 대선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선거과정 분석

(1) 시우바의 네비스 후보 지지 선언

2014 브라질 대선 2차 결선투표의 관건은 1차 투표에서 21.3%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한 사회당(PSB)의 마리나 시우바(Marina Silva) 후보와 그 지지자들의 표의 향방이었다. 이들 표의 향방이 결국 대선의 당락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보수당인 사회민주당의 네비스 후보는, '반대파 끌어안기'의 일환으로 사회당의 초반 대선 후보였던 에두아르두 깜뿌스(Eduardo Campos)[2] 후보의 고향을 찾아가서 자신의 대선공약을 발표하였다. 사회당의 사회복지정책과 농지개혁정책 그리고 선출직의 연임금지 관련 공약들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네비스 후보는 사회당 대선후보 마리나 시우바와 그 지지자들의 표심을 잡는데 주력하였다.

시우바의 최종 선택은 의외로 중도우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후보 네비스였다. 시우바는 28년간 노동자당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룰라 정부하에서 호세프 후보와 함께 환경부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따라서 네비스 후보와는 이념적으로나 출신배경에서나 너무도 거리가 멀다. 그는 또한 2010년 대선에서도 3위를 차지하였는 바, 그 때는 중립을 선언하였다.

2014 대선에서 노동자당과 사회민주당 양당체제가 지배하는 브라질 정치구조를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나섰던 시우바가 네비스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분명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시우바는 자신이 네비스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 그가 현 브라질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또한 브라질 국민이 정권교체를 열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우바의 지지를 계기로 네비스의 지지도는 급격히 상승하였고, 대선승리까지 예상되었다.

(2) 상호비방과 인신공격의 난무

결선투표를 앞둔 2014 브라질 대선 과정은, 두 후보간의 지지율이 브라질 선거사상 보기 드물게 박빙의 차이를 보여 정책대결보다는 치열한 상호비방이 난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 70%의 유권자들이 상호비방에 몰두하는 선거운동에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음[3]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가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상황의 절박함을 반증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두 후보간의 비방전은 주로 각자 재임중[4] 발생한 부패사건의 책임공방과 개인적인 비리의혹 등에 집중되었다. 실제로 결선투표

1) *O Globo*, 2014년 10월 26일자

2) 2014년 8월 13일 선거운동 중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여 신화적 존재가 된다. 그 결과 마리나 시우바는 사회당 부통령후보에서 대통령후보로 격상되었다.

3) *El País*, 2014년 10월 22일자.

4) 네비스 후보는 Minas Gerais 주지사(2003-2010)를 역임했고, 현역 상원의원이다.

를 앞두고 실시된 제2차 TV 토론에서 호세프 후보는, 여동생을 주정부기관에 취업시킨 네비스 후보의 정실주의를 비판하자, 네비스 후보는 "자신의 여동생은 일만 열심히 하고, 월급은 받지 않았지만, 호세프 후보의 남동생 이고르 호세프는 시청에 취업해서 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았다. 이것이 호세프 후보와 나 사이의 차이점이다."[5] 라고 공박했다. 호세프 후보가 다시 네비스 후보의 과거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비난하자 네비스 후보는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거론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보일 태도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3) 룰라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선거운동

좌우협공을 받는 처지에 놓인 호세프 후보가 의지할 곳은 자신이 속한 노동자당과 자신의 정치적 멘토인 룰라 전 대통령의 지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룰라 전 대통령은 투표 4일전에 호세프 후보의 '구원투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출신 주(州)인 Pernambuco[6]를 찾아 가서 "네비스 후보가 이 지역에서 단 한 표도 얻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 지역에 주말을 즐기러 온 것 외에는 이곳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공감한 적이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농사는 어떻게 짓는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사회민주당 후보를 공격하였다.[7]

5) *El País*, 2014년 10월 18일자.

6) 북동부 지방은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고, 주민의 대다수가 호세프 후보와 노동자당을 지지한다.

3. 선거결과 분석

(1) 호세프와 노동자당의 절반의 승리

이번 대선결과는 두 후보 간의 득표율의 차이가 불과 3.28%로서 [표 1]에서 보는 바와같이 2000년대 이후 가장 박빙의 승부였음을 보여준다. 호세프 후보 입장에서는 2010년 대선에서 거둔 득표율에 비해 4.4%나 감소하였다. 노동자당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02년에 비해 지지율이 무려 10%나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연도별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 결과

연도	후보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	득표수 합계
2014	호세프	PT	54,499,901	51.64	105,540,911
	네비스	PSDB	51,041,010	48.36	
2010	호세프	PT	55,752,529	56.05	99,463,917
	세라	PSDB	43,711,388	43.95	
2006	룰라	PT	58,295,042	60.83	95,838,220
	알크민	PSDB	37,543,178	39.17	
2002	룰라	PT	52,793,364	61.27	86,164,103
	세라	PSDB	33,370,739	38.72	

(PT: 노동자당, PSDB: 사회민주당)

한 때 룰라 대통령의 지지도를 능가했던 호세프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신승(辛勝)을 기록한 데에는 2013년 6월의 시위와 대선 직전 불거진 부패사건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가 백만명에 달함으로써 1992년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가 된

7) *El País*, 2014년 10월 22일자.

6월의 대규모 시위사태는 장기집권으로 인한 집권당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드러낸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8)]

또한 선거직전에 집권당 소속 정치인들이 연루된 브라질 국영석유회사(Petrobras)의 부패 스캔들[9)] 폭로도 호세프 후보에게 치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호세프 대통령 자신이 룰라 대통령 정부에서 에너지장관(2003-2005년)과 Petrobras의 이사장(2005-2010년)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2) 더욱 심화된 계층간·지역간 분열

앞서 [그림 1]에서 본 바와같이 이번 대선을 통해 브라질의 계층간·지역간 분열 양상이 더욱 분명해졌다. 즉,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이 주로 모여 사는 브라질의 북동부 지역은 중도좌파 성향의 노동자당의 호세프 후보를 지지하였다. 한편 산업이 발전되고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서부 지역은 중도우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의 네비스 후보를 지지하였다.[10)]

4. 향후 전망과 과제

호세프 대통령의 집권 2기는 다양한 도전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세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정치개혁이다. 현재 브라질에는 28개의 정당이 존재하여 정치적 비효율을 낳고 있어 이를 개혁하기 위해 봉쇄조항의 도입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원내에 진입해 있는 군소정당들의 저항이 커서 그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거대정당의 독주를 막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높이는 브라질 선거제도의 취지가 효율적인 국정수행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 극복이 요구되고 있다.

호세프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이번 대선에서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한 네비스가 이끄는 야당의 존재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시장의 저항과 비협조를 극복하는 일일 것이다. 현재 브라질의 경기침체는 기업에게는 매출감소, 근로자에게는 불확실한 미래, 정부에게는 세수의 감소로 작용하고 있다.[11)]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시장의 구조조정 요구와 최저임금의 인상과 저금리 정책을 통한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호세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8) Nicolas Bourcier, "Dilma Rousseff ne convainc pas les ouvriers de l'Etat de Sao Paulo", *Le Monde,* 2014년 9월 14일자

9) 집권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49명, 상원의원 12명, 현직 장관 1명, 현직 주지사 1명이 부패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Les Echos*, 2014년 9월 6일자

10) Antonio Jiménez Barca, La campaña electoral polariza Brasil, *El País*, 2014년 10월 22일자.

11) *El País*, 2014년 10월 24일자.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이며, 이 중 일부는 국회방송(www.natv.go.kr)에서 「의정 이슈와 논점」으로 방송됩니다.
(매주 월요일 AM 7:00, PM 9:00)